

한교총 “단계적 낙태 유도 약물 도입’ 강력 반대”

17일 성명 발표… “태아,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

국회, 낙태 관련 법적 규율체계 조속 마련을
정부, 낙태 약물 제도적 도입 추진 중단해야
국가의 가장 큰 책무, 국민의 생명 지키는 것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성 목사, 이하 한교총)이 ‘생명보호의 법체계를 외면한 ‘단계적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17일 이 성명에서 “법제자는 2026년 8월 19일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대해,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수입품목허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허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았다”며 “이러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내용으로 허가가 신청되어 있으며, 정부는 해당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교총은 “이에 한국교회는 모든 생명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이며, 생명의 시작과 종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밝힌다”며 “따라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제도적 절차와 의료적 편의, 개인의 선택이나 의약품 허가,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태아는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이며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또한 태중의 생명을 인간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을 인간의 선택 영역으로 돌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한교총은 “낙태 약물은 단순히 복용만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의약품이 아니다. 미국 FDA는 미페프리스톤 사용에 따른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위해성평가·완화전략(REMS)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방자가 응급진료와 필요한 수술적 처치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처럼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단순한 선택과 편의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낙태 약물의 편의와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에 앞서, 임신한 여성이 경제·작사화적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



한교총 임원들 ©기독일보 DB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국회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원칙으로 낙태 관련 법적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며 “낙태의 허용 주·사·유·절차를 비롯하여 상담과 숙려, 미성년자와 취약여성 보호, 의료적 안전관리와 응급대응, 약물의 처방·복용·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법적·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 약물의 제도적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행정적 판단이 태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생명윤리적·헌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 낙태 약물의 문제를 단순한 의약품 허가·의료 접근성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되기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낙태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라”며 “위기임산부와 미혼모,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그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낙태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와 지원체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태아는 물건이 아니며, 임신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낙태는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며 “태아는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이며,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존재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특히 가장 약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태아 생명권 짓밟고 여성 건강권 위협하는 낙태약 도입 안 돼”

거룩한방파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정부 도입 방침 규탄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이하 거룩한방파제)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낙태약 정식 도입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63일, 즉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룩한방파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

한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 집단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낙태약 합법화를 서두르는 것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많은 학부모들과 종교인들의 분노를 낳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월 14일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조차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과다 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 역시 같은 날 낸 성명에서 “미프진(낙태약)에 대한 초법적·판법적 도입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거룩한방파제는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낙태약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인용해 약물 낙태의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낙태약 사



거룩한방파제 관계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용 응답자 중 71.4%가 낙태약 사용 후 완전히 임신 중절이 되지 않아 남은 태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추가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거룩한방파제는 “과다 출혈, 심한 복통, 패혈증, 자궁 파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낙태약이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임시중절’이라고 하는 국민 기반적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중절’은 중간에 멈춘 상황이며,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낙태약을 사용해서 죽은 태아는 다시 살아나지 않으므로 임신을 다시 재개할 수 없다”며 “그러면 ‘살인’도 앞으로는 ‘생명 중지’라고 불리도록 관습은가. 정부는 정작하게 ‘임신중절’이나 ‘낙태’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뉘

앙스로 다가가서 국민들을 미혹시키고, 태아 살인을 조장하는 일을 정부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거룩한방파제는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는 별개의 고유한 DNA를 지닌다. 즉, 엄마와는 독립된 생명”이라며 “태아가 엄마의 세포에 불과하므로 임신부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여성이 행복권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고 여성의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낙태약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고 낙태약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간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대대적인 국민 반대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공식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파회

정영교 총회장 “총회, 어느 때보다 은혜롭게 마무리”

지난 14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개최한 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가 공식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17일 오전 파회했다. 총회 넷째날인 이날 규칙부 완전 보고 등이 있었으며, 국내 연합기관 및 해외 교단 관계자들이 총대들에게 인사는 순서로 가졌다. 나머지 제반 업무 처리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총회장 정영교 목사의 설교로 파회예배를 드리고 올해 정기총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정 총회장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4일 동안 때론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지만 그 모든 과정이 교단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숙한 회의 문화로 배려하고 협조해주시는 덕분에 이번 총회가 어느 때보다 은혜롭게 마무리되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정 총회장은 “이제 파회를 선언하면 여러분은 각자의 사역지와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며 “총회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부를 드린다. 하나 뉘를 꼭 지켜달라. 그리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끝으로 새 회기를 위해 기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총대들은 ‘하나로 미래로 거룩함으로’라는 이번 제111회 정기총회 주제를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했고, 정영교 총회장이 축도함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29.9km

영월

70.3km

삼척

예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